

반복되는 학교비정규직 파업...학부모들 ‘분통’

광주·전남 200여곳 급식대란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분주
학교 대체급식·단축수업 추진

오는 31일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급식 실 종사자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급식·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상황반을 꾸려 대비하고 있다.

29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31일 시·도교육청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에는 광주 900명, 전남 1,000여명이 참여했다. 총파업 당일 상당수 노조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급식과 방과 후 돌봄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총파업 당시에는 광주 전체 254개교 중 122개교, 전남 877개교 중 134개교가 빵·우유·도시락·학사일정 조정으로 파업에 대응했었다. 올해도 광주와 전남지역 200여개 학교에서 빵·우유·도시락 등으로 급식이 대체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

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합리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처우 통일 ▲기본급 월 5만5,840원 인상 근속수당 3만9,900원 지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입장 차이가 커 31일 총파업 강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급식·돌봄 등의 대책을 마련해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안내했다.

파업에 따라 정상 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급식 또는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상황

에 따라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돌봄 대책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돌봄 수요와 여건을 고려,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재분장·재배치를 통해 돌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총파업으로 인한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교육 과정 변경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도 지난주부터 알림장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매년 반복되는 학기 중 파업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 정 모씨(46)는 “지난 28일 가정통신

문에 총파업으로 대체급식과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아이를 바꿀 사람이 없어 연차를 냈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아이들을 불모로 한 파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서 모씨도 “지난 22일 알림장으로 총파업으로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31일은 출근·등교 준비에 도시락 2개를 싸려면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며 “알림장을 받고는 코로나19때 소풍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아 좋았던 때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중흥도서관 개관 1주년 행사 29일 오후 광주 중흥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중흥도서관을 색칠하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형 캔버스에 그려진 도서관 밑그림에 색을 칠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양림동 ‘이장우 가옥’ 내달 3일부터 개방

근대화 시기 남도 상류층 가옥의 모습을 간직한 이장우 가옥이 광주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광주 남구는 다음달 3일부터 남구 양림동에 있는 이장우 가옥을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장우 가옥은 대문간과 곳간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배치된 기와집으로, 고즈넉한 멋을 간직하고 있다. 이중 안채는 지난 1989년 광주광역시 민속 문화재 1호로 지정됐으며, 꼭 둘러보아야 할 곳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해당 건축물은 안채 상량문에 ‘광무삼년을해

이월십일축시’로 기록된 점을 보아 근대화 시기인 1899년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가옥을 건립한 이는 광주의 대부호인 양파 정낙교 선생으로, 큰 아들인 정병호에게 가옥을 물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개방 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옥 훼손 방지를 위해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가옥 내 사각지대에도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민찬기 기자

여성단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광주시 현실적 문제의식 없어”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시설 확충 등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여성회의전화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갖췄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주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지난해 8월 기준 414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보다 189% 증가했다”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모델 등 숙박업소를 임시 숙소로 제

공하고, 보호 쉼터 ‘비상’은 24시간 운영 불가, 안전 장비 미비 등 스토킹 피해자 쉼터 기능으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현실적인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산술적인 접근으로 피해자 지원정책을 포기했다”며 “외부 단절이나 피난에 중점을 둔 기존 쉼터와 달리, 경찰과 협업체 안전을 담보하면서 피해자가 직장·학교 등 일상생활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9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일환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김혜린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 “학폭, 학부모 개입 막아야”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의 해결 기능을 강화해 학부모와 법률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의 교육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화해와 치유 등이 있어야 진정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①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② 중급반 (실전부터 ~)
- ③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④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⑤ 전문반 모집 (직업, 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 매주1회물건스터디

★ 경매 물건추천 ★

경매일	소재지	종류	감정가	최저가	경매일	소재지	종류	감정가	최저가
3/23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8억9천	6억2천	4/17	김제시 하동	아파트	130억	32억
4/26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50억	28억	4/10	보성군 벌교읍	펜션	130억	5억7천
4/27	광산구 신가동	상가빌딩	13억8천	9억7천	3/27	목포시 무안동	상가빌딩	3억2천	1억8천
4/4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3억7천	3억7천	3/27	김제시 서암동	무인텔	23억	8억2천
4/25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4억	2억8천	4/3	함평군 월야면	의료시설	35억	12억
4/25	서구 화정동	근린상가	1억1천	5천1백	4/10	목포시 용당동	상가빌딩	9억	6억3천
4/28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3억1천	1억7천	4/27	나주시 산포면	상가주택	33억	15억
4/27	서구 농성동	잡종지	1억5천	1억	5/1	목포시 옥암동	상가주택	11억	7억7천
4/28	북구 문흥동	농지	2억9천	2억	4/3	함평군 월야면	의료시설	35억	12억
4/12	서구 풍암동	임야	25억	5억7천	4/24	목포시 항동	상가주택	6억8천	4억8천
4/25	광산구 수완동	농지	11억	7억8천	4/13	나주시 빚가람동	식자재마트	54억	24억
4/28	광산구 덕림동	임야	21억	12억	3/27	전주시 완산구	상가주택	6억8천	1억5천
4/28	북구 문흥동	농지	2억9천	2억	4/4	장성군 장성읍	농지	1억7천	1억2천
4/28	광산구 수완동	아파트	7억5천	5억2천	4/27	장성군 북이면	주택	2억9천	2억
4/13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2억8천	1억6천	4/4	영광군 묘량면	공장	8억2천	2억3천

010-6670-9800

062-382-5500